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일 수요일 음 12월 7일 (14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새해 첫 날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산지에는 새벽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1~3℃, 낮 최고 기온은 7~11℃에 머물며 세밑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7:38 / 해짐 17:36	달뜸 11:41 / 달짐 23:14
물때	만조 01:58 / 14:52	간조 08:26 / 21:41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5/12℃
모레	구름 많음	7/1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주의	높음

월드뉴스

마다가스카르 학생들, 한국 전래동화 배운다

올해부터 초등 교과서 수록

주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마다가스카르 교육부 관계자들.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초등학생들이 올해부터 한국의 전래동화가 수록된 교과서를 공부한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대사 임상우)은 올해 1월부터 마다가스카르 수도권과 주요 지방 도시의 초등학교에 교과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전래동화와 문화'가 시범적으로 배급될 예정이라고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이 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다.

한국 전래동화에는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의 이야기인 '흥부와 놀부', 용궁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토끼 이야기를 다룬 '별주부전'이 포함됐다.

또 이 교과서는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도 다뤘다.

마다가스카르는 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00달러대에 불과하고,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가시어로 된 교과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전래동화와 문화'는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희망의 새해를 맞으며

흔히 우리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는 뱉어 버린 말과 쏘아버린 화살 그리고 가버린 세월이라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잃어버린 건강과 놓쳐버린 기회도 모두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흘러간 시간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다시 역류하거나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순간 그만큼 신중하고 열심히 보내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가버린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 남긴 것으로 인해 과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활짝 핀 꽃도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게 되어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다만 흘러갈 뿐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과거에 매달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떨치지 못하면 더욱 더 힘든 고통을 맞게 된다.

사람은 좋은 추억보다 아픈 기억이 오래 남기 마련이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아픔을 경험으로 같은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현재의 일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서양 속담 중에 "당신의 가장 좋은 시절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격언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 현재도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하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이고, 미래의 과거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삼중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지도 모른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새해를 맞으며 지난 시간을 잘 정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새로이 맞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 더욱 충실 한 것,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더 커지는 진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하고 슬퍼해도 또 한해가 지나간다. 시간은 흘러 또 한 살의 나이를 먹게 된다. 생각해 보면 속절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한 해 동안의 세월의 무게만 아픈 상처로 남는다. 인간은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한다고 하지만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버린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가는 시간을 잘 정리하여 보내고, 오는 시간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희망의 새해를 위하여 할 일이다.

<문학평론가·영남대 교수>

열린마당

경량칸막이를 알고 계신가요?

양 혁 재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2016년 2월 새벽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집주인 이 씨는 아내를 깨우고 3살 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 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지만 밖은 아파트 7층이였다. 결과적으로 이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독가스가 번지는 진퇴양난의 아찔한 상황에서 이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경량칸막이'였다. 이 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 벽을 있는 힘껏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간이 벽체로, 약 9mm의 석고보드로 돼 있어 누구나 쉽게 부수고 탈출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이 있어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뿐이다.

평상시에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않고 위치를 숙지하는 등 화재 대피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량칸막이가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렴의 꽃, 동백꽃이 피는 계절

오 수 진
서귀포시 건축과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로 자리를 지키다 추운 겨울부터 봄에 걸쳐 붉은 꽃송이를 피우는 동백. 동백의 꽃말이 청렴과 절조, 겸손한 마음을 뜻해 조선시대 청렴한 선비들은 동백을 높이 기렸다고 한다.

'세한삼우'는 추운 겨울의 세 가지 벗이란 뜻으로, 추위에 강해 겨울철에도 한결같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동백은 세한삼우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 겨울에도 추위를 견디며 꽃을 피워내는 점에서 세한삼우와는 다른 동백에게서 더 곧은 의지와 절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며 청렴을 몸소 실천했던 선비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매년 겨울이 되면 붉게 물든 동백꽃을 보기위해 동백 군락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지만 동백의 상징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동백꽃을 바라보며 동백꽃이 가지는 의미를 되돌아보며, 겨울에 아름답게 핀 동백꽃 앞에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었던 것처럼 업무에 임할 때도, 민원인을 대할 때도 항상 웃으며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청렴의 씨앗을 품어야겠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백에게서 지조와 기다림을 배우고, 겨울이 돼 동백꽃이 피어 올 때쯤이면 동백이 갖는 청렴, 절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도 청렴의 꽃을 피워보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백과 같이 우리 삶에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녹아들 수 있도록 청렴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가꿔나가야 한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청렴이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나아가 청렴한 세상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청렴의 작은 꽃을 피워 따뜻한 사회의 봄날을 기대해 본다.

제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주교육대학교총동문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동창회의 **정기총회**와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1월 6일(월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제주시 KAL호텔 2층, 연회장
■ 행사내용 : ▶제1부 - 정기총회 ▶제2부 - 신년하례회
■ 행사문의 : 사무국장 장 원 구(064-755-0051(구내번호2))

• 고 문 : **강정통**(사범2회), **김봉육**(사범2회), **고찬식**(사범4회), **양기휴**(사범5회), **강천종**(사범7회), **김병수**(사범8회), **홍석표**(교대1회), **양성언**(교대1회), **오남두**(교대3회), **고헌철**(교대4회), **오용관**(교대5회), **고성대**(교대6회), **김영규**(교대7회), **강시백**(교대8회), **한성국**(교대9회), **박재형**(교대10회), **김철호**(교대11회)
• 자 문 위 원 : **오대익**(교대5회), **김영보**(교대9회), **홍성욱**(교대12회), **허현국**(교대14회), **김진선**(교대19회)
• 직 전 회 장 : **김철호**(교대11회)
• 회 장 : **양승필**(교대12회)
• 수석부회장 : **김창식**(교대13회) • 상임부회장 : **고가연**(교대21회)
• 감 사 : **양순욱**(교대24회), **강경봉**(교대25회)
• 부 회 장 : **강승화**(교대15회), **고영탁**(교대15회), **강시남**(교대17회), **조윤하**(교대20회), **박희순**(교대21회), **이수배**(교대13회), **홍상표**(교대14회), **강애숙**(교대15회), **송경욱**(교대16회), **김종범**(교대17회), **백철호**(교대18회), **고용석**(교대19회), **조미영**(교대19회), **조정희**(교대20회)

제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회 장 양 승 필 외 임원 일동

※ 신문홍보로 개별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일출 처럼 빛나는 희망과
새로운 출발의 설렘으로 가득한 경자년 새해,
경림산업 임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변함없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제주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선정
· 강소기업선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 명문장수기업

경림산업주식회사
KYUNGRIM INDUSTRIAL Co., LTD
본사 : 제주시 애월읍 신엄8길 13
전화 : (064)799-0410 팩스 : (064)799-5410
Email : k-r@hanmail.net, 홈페이지 : www. kyungrim.co.kr
취급품목 : KS단열판, 준불연단열판, 농수축산물상자, EPS몰딩, 조형물